

- **주요 뉴스:** 미국, 10%의 글로벌 관세 발효.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비 상승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둔화되면 금리 인하. AI發 고용 감소 가능성도 거론
 - 중국, 20개 일본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인민은행은 주요 대출우대금리 동결
 - 일본 총리,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부정적.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AI의 여타 산업 잠식 우려 일부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관련 투자심리 개선, 반도체 관련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예상보다 낮은 트럼프 관세율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엔화 약세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무난한 수준의 2년물 입찰 수요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약보합 마감

※ 뉴욕 1M NDF 종가 1440.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2.2원, 0.02% 하락). 한국 CDS 강보합

주요지수					주요금리				
		2/24일	2/23일	전일대비			2/24일	2/2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90.1	6,837.8	+0.77%	국채금리 10y	미국	4.03%	4.03%	-0bp
	유럽	629.14	627.70	+0.23%		독일	2.71%	2.71%	-0bp
	중국	4,117.4	휴장	+0.87%		영국	4.31%	4.31%	-1bp
	일본	57,321	휴장	+0.87%	CDS 5y	한국	23bp	23bp	+0bp
	한국	5,969.6	5,846.1	+2.11%		중국	43bp	43bp	+0bp
환율	달러지수	97.90	97.71	+0.19%	위험지표	EMBI+	-	265	-
	유로화	1.1772	1.1785	-0.11%		VIX	19.55	21.01	-6.95%
	엔화	155.87	154.65	-0.78%		WTI유	65.63	66.31	-1.03%
	위안화	6.8823	휴장	+0.33%	원자재	구리	589.8	578.1	+2.03%
	원화	1,442.5	1,440.0	-0.17%		금	5,143.9	5,227.4	-1.6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0%의 글로벌 관세 발효.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비 상승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 같이 24일부터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對美 수출품에 10%의 관세가 새롭게 적용.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15%의 관세는 정식으로 발효되지 않았으며, 익명의 관계자들은 백악관에서 관세를 15%로 높이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 이번 조치는 7/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당국에서는 그 사이 무역법 301조와 232조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 이는 기존 관세 수입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규모 對美 투자를 조건으로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의도
- 한편, 이날 발표된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1.2를 기록, 전월(89.0) 대비 상승.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다소 완화되어 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상승했으나 최근 4년 중 고점이었던 '24년 11월(112.8)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
- 작년 12월 FHFA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비 0.1% 올라 11월(0.7%)에 비해 상승세 둔화. 같은 달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1.4% 상승하여 전월(1.4%)과 동일한 수준 기록. 최근 4주 동안의 ADP 민간고용은 평균 12.8천건 늘어 이전(11.5천건)과 비교하여 개선된 모습
- 작년 12월 도매재고는 전월비 0.2% 증가하여 11월(0.2%)과 동일한 수준. 품목별 기준으로는 자동차와 가구가 크게 늘었으나 컴퓨터기기는 감소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둔화되면 금리 인하. AI發 고용 감소 가능성도 거론

-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까지 하락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으나 생산성 향상 기대에 의존하여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AI 활용이 확산될수록 구조적인 고용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발언. 또한 AI로 실업이 늘어날 수 있는데, 연준이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부연

■ JPMorgan 다이먼 회장, 금융업계 대출 경쟁은 과거 금융위기 직전 시기와 유사

- 다이먼 회장은 최근 미국 금융업체들이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고 언급. 헤지펀드 Bridgewater Associates는 AI 붐이 인프라 투자 급증, 외부 자본 의존도 증가를 동반하여 더 위험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 만일의 경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평가

■ 독일 메르츠 총리,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

- 메르츠 총리는 ACI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끝내기 원한다고 발언. 하지만 필요할 경우 ACI의 사용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등 교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중국, 20개 일본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인민은행은 주요 대출우대금리 동결

- 상무부는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 및 기관 20개를 수출 통제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발표.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항의성 조치인 것으로 추정
- 한편, 인민은행은 1년물 및 5년물의 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3.0%, 3.5%로 유지.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및 내수 촉진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해 인민은행이 LPR을 동결했다고 진단

■ 일본 총리,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부정적.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있었던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와의 면담에서 금리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전보다 금리 인상에 더 엄격한 태도 유지
- 이번 보도는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기조가 통화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 이에 금리 정상화를 통해 물가 상승에 대응하려는 일본은행 계획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시장 관심이 증가할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25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무살렘 총재 및 캔자스시티 연은 슈미드 총재 발언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 호주 1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AI 산업, 예측 불가능한 국면 여전한 가운데 호황과 불황이 동시에 진행 - WSJ

(The AI Bust is Here. The AI Boom Is Still Going.)

- 역사적으로 신기술은 관련 산업의 붐을 유도하고 이후 불황으로 연결. 하지만 AI의 경우 관련 산업의 붐과 붕괴를 동시에 야기하여 미래 예측에 혼란이 가중. 일례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속되지만, 이에 대한 과잉투자 우려가 존재하며, 마법과 같은 기술력이 일부 기업의 사업 모델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
- 아울러, 기업의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한 경쟁적인 자본투자가 오히려 제품가격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자본 집약적이고 부채가 많은 기업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문제. 한편, 데이터센터 건설 수혜 업체(건설장비, 전력, 메모리 칩 등)와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ASML 등)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AI 산업에서의 승자와 패자 예측은 아직 어려운 상황

■ 미국의 對이란 공습, 제한적 목표물 선정 방식으로 진행될 소지 - 블룸버그

(The US Has Three Options If It Wants to Hit Iran)

- 미국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보전·전자기 공격 등 非파괴적 방식 ▲제한적 공격 ▲전면적 군사작전 등이 주요 시나리오로 거론. 다만, 상황을 고려할 경우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한적 목표물(미사일 기지, 핵시설 등) 선정 후 공격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
- 또한 무력한 이란의 방공망,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가능성 차단 등을 감안해도 이러한 대응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일각에서는 이란이 러시아·중국의 군사적 지원 기대, 제한적인 미국 지상군 파병 가능성 등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 관세정책의 무역적자 축소 효과, 무역 상대국의 수출 자원으로 매우 제한적 - WSJ

(Why Tariffs Aren't Shrinking the U.S. Trade Deficit)

- 미국의 '25년 상품무역 적자는 트럼프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이는 무역 상대국들이 자국 수출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 중국·독일·한국 등의 수출 주도형 국가가 무역수지에 민감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
- 실제로, 일본의 경우 부양책에서 상당 부분은 산업보조금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1조 유로 규모의 대규모 지원을 제조업체에 제공. 다만, 지나친 보조금 지급은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와 소비를 저해할 수 있어 주의 요구

- **중국의 미국 달러화 자산 축적 지속, 미국 국채 매도 우려는 과장 - Financial Times**
(China is not dumping US Treasuries)
 - 중국은 계속해서 대규모로 미국 달러화와 해외증권을 매입. 일례로 12월에 국유은행·중앙은행이 1천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외환을 매입했고 1월에도 해당 매입 규모는 12월과 비슷한 수준. 이러한 행태는 무역흑자 확대 속 수출기업의 달러화 매도에 대응한 환율 방어 조치의 결과
 - 중국의 달러화 자산 축적이 외환보유액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보유주체가 국영 상업은행·정책은행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며, 통계상 미국 국채 보유액이 감소한 것도 미국 외 수탁은행 이용이나 정책금융 지원으로의 전환 때문
 - 중국은 막대한 무역흑자와 환율을 관리해야 하는 한 달러화 자산 축적이 불가피. 직접 미국 국채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시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을 공급. 이를 감안하면, 달러화 패권 종말 논의는 시기상조
- **미국 관세 환급, 정부 불복으로 장기전 예상. 소송 필요성에 중소기업은 불리 - 블룸버그**
(And Now for the Battle Over Tariff Refunds)
- **미국의 과도한 재정부채, 대책 부재 시 국채금리 상승은 불가피 - WSJ**
(America's Bills Will Come Due)
- **미국, 對이란 전쟁 관련 명확한 목표·계획 결여 등의 문제에 직면 - Financial Times**
(Donald Trump's fateful decision on Iran)
- **중국의 對日 품목 수출 제재, 대만을 둘러싼 경제 대립 격화 시사 - WSJ**
(China Hits Japanese Firms With Export B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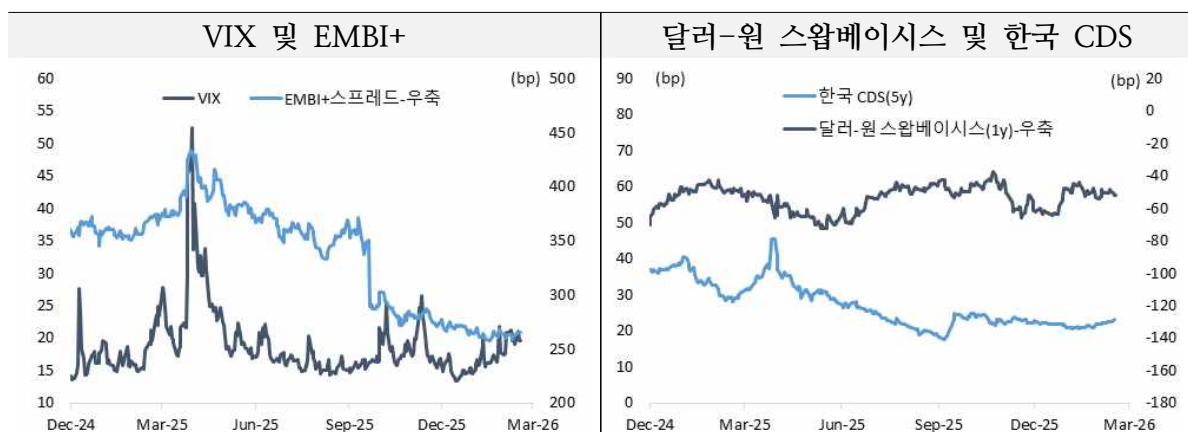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